

시론



주홍
자유예술가

“웃 한 벌 샀는데 어쩐가?”
오월어머니집 한 쪽에서 패션쇼가 열렸다. 어머니들이 소비쿠폰으로 옷가게에 들러 원피스도 사고 시원한 꽃무늬 티셔츠도 사고, 함께 장에 다녀오신 것이다.
“나는 민생소비쿠폰으로 소고기 사먹었네.”
오월어머니들은 수박도 사고 전복도 사고 평소에 비싸서 못샀던 것들을 통크게 샀다며 이야기 나누고 그림을 그렸다. 민생소비쿠폰이 오월어머니들에게 행복을 선물하고 있었다. 골목 경제를 살리는 민생소비쿠폰이 경제를 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행복한 시간을 선물했다.
“그렇게 정치하면 행복할까요?”
12·3비상계엄 이후 후보시절 이재명 대통령이 오월어머니집에 들렀을 때, 그의 정치 철학이 담긴 한 마디다. “저는 국민들이 행복하면 제가 행복해요. 모두가 행복해

K-President 이재명

지려고 정치합니다.” 그 자리에는 딸기가 놓여있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주변 어머니들께 먼저 딸기를 포크로 찍어서 한 분씩 드린 후에 딸기를 드셨다. 주변 사람들을 먼저 챙기고 공감하고 위로할 줄 아는 따뜻한 정치인이 나타났다고 오월어머니들이 반겼던 기억이 있다. 어떻게하면 국민이 행복해질까를 끝없이 생각하고 실행하는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고 보니, 성질 급한 국민보다 더 속도 빠른 행정의 변화를 느낀다. 요즘은 정치 효능감에 뉴스를 찾아 보게 된다.

대통령이 일하는 모습을 공개하는 게 주요 뉴스가 되고 회의를 주관하는 모습을 보며 사회 전반적으로 문화가 바뀌고 있다. 대통령과 공무원들이 모여있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진짜 일을 한다. 모든 대통령 간담회의 과정을 주권자 국민에게 공개한다. 통찰과 실력을 갖춘 대통령은 그 일의 핵심을 간파하고 질문한다. “공개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공개하는 걸로 하죠.” 대통령의 일하는 투명한 방식은 그대로 각계각층의 조직문화에 영향을 주고, 대통령이 묻고 대답하는 회의 방식은 우리사회에 교육이 되고 있다. 시민 사회에서 회의 중 핵심을 간파하고 실력과 추진력이 있으면 ‘이재명스럽다’는 유머를

할 정도다.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바꾸라는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다. 국민주권시대 행정의 핵심적인 방향 전환이다. 행정이 먼저 찾아가라는 것이다. 특히복지정책의 방향과 내용에서신청주의행정을잔인하다고 지적했다. “복지 대상자가 정해져있는데 왜 굳이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가?” 복지신청자가 가난을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가? 우리는 그동안 왜 이런 부분을 간파했을까? 이런 지점을 볼 수 있는 대통령이라니, 진짜 일꾼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다. 지자체장 중에는 대상자 50만명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1천명에게 지급하면서 경쟁률이 100대1이라고 뜬수 성과를 자랑이라고 한다며 질었다. 대통령의 이런 영향력은 지방정부의 행정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1천500억원 친일파 재산환수를 지정한 것도 통과했다. 국민주권정부의 소통능력은 세계 최고라 할만하다. 정부가 세금으로 하는 일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집단지성의 판단에 맡기는 방식은 처음이다. 대통령이 국민이 행복한 정치를 한다는 자신감으로 일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회의를 하고 현장에서 지시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행복하게 보인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꿈을 꾸며 실행하는 대통령을 보면 K-Pop처럼 K-President라 부르고 싶다.

社説

식품·의료 클러스터 화순 폐광지역 성공모델 되길

화순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화순광업소 폐광산 일대에 농공단지와 스마트팜 단지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의료·식품 등 특화기업 유치와 고부가가치 농산물 재배를 통해 새로운 산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총 사업비는 3천579억원 규모다.
과거 광산업을 기반으로 지역경제를 이끌었던 화순은 2023년 6월 조기 폐광으로 인구 유출과 침체가 심화돼 대체산업 발굴과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했다. 진흥사업은 같은 해 예비타당성으로 선정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으로 올해 8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거쳐 경제성과 필요성,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을 인정받았다. 생산유발 1조1천709억원, 고용유발 5천602명, 취업유발 7천804명 등 경제파급이 예상된다.
당초에 골프장과 리조트 등을 포함한 복합관광단지 설립을 시도했다가 국비 지원 부적합 판단을 받는 등 일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개발사업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폐광 지역인 강원도 삼척시 도계광업소 부지는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80병상의 ALL 케어센터 등이 들어선다. 중입자가속기는 ‘꿈의 암치료기’

로 불리는 첨단 의료 장비다. 태백시 장성광업소에는 국내 최초의 정정메탄올 제조시설과 함께 핵심광물 산업단지와 정정메탄올·광물 물류시설 등을 구축한다. 사업비는 각각 3천603억원, 3천540억원이다.
화순탄광은 118년 간 남부권의 최대 석탄 생산지로서 국민 연료의 수급 안정과 지역경제에 기여했다.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마감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대한석탄공사는 경도에 계속 깊어지고 생산 설비가 노후화돼 안전사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물론 연탄 수요 감소에 따라 석탄 생산 원가가 급증, 재정 부담도 증가하는 점 등을 들어폐광을 결정했다. 이에 정부는 해당 지역의 침체를 막기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다양한 대체산업을 조성하는 진흥사업을 추진해왔다.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전환기다. 시대적 흐름인 탄소중립에 발맞춰 광업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재생과 신성장거점으로 거듭나야 한다. 근로자와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으며, 삶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 전력해야 한다. 특히 화순이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다.

불황 여수 석유화학산업 뼈 깎는 자구노력만이 살길

정부가 석유화학업계에 공급과잉 해소 차원에서 최대 370만t의 나프타분해시설(NCC) 감축 등 자구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체 생산능력 1천470만t의 25%에 해당하는 상당한 분량이다. 연말까지 기업별로 제출한 사업 재편계획을 근거로, 금융과 세제, R&D, 규제완화 등 패키지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나타났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면서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구 부총리는 “바티면 된다”,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으로는 당면 위기를 절대 극복할 수 없다”며 질책도 했다. 기업들은 이번에는 다르다고 긴장감이 역력하다.
채찍과 당근이다. 전반기 주력 산업으로 여수 국가산단에 소재한 기업들은 숙제를 떠안았다. 이곳에는 롯데케미칼, LG화학, 여천NCC, GS칼텍스 등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울산과 충남 서산의 대산을 포함해 3개 석화 산단 중 최대 규모인 만큼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이 예

상되고 있다. 이미 가동률이 떨어진 상황에서 영구적인 방안까지 도출해야 하는데 시간이 문제라는 불멘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 석유화학의 화려한 재도약을 약속하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 자월에 맡겨두지 말고 증설한 설비를 줄이는 등 사업 재편에 탄력을 불도록 직접 개입하고 구체 지원도 필요한 시점이다.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논의될 분위기를 조성하며, 고부가 친환경 제품으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집중해야 한다. 일각의 전망처럼 정유사와 석화사 간의 수직적 통합부터 NCC를 보유한 석화사 간의 빅딜이 속도를 내야 하는 것이다.
국가와 지역경제를 떠받쳐온 기간산업의 퇴조가 뚜렷하다. 코로나19 때도 호황이었으나 중국발 공급과잉이 직격탄이 됐다. 예고된 재앙에 안일했다. 존재의 갈림길이다. 더 물러설 곳이 없다. 돌파구를 찾기 못하면 공멸이다. 정부는 ‘사즉생(死即生)’의 각오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이 결코 업포가 아니라며 더 분명하게 메시지를 내야 한다.

문화난장



최래오
들꽃작은도서관장

사회생활을 하던 시절, 카페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일터 속 만남의 장소였다. 일상 속 짧은 여유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때의 카페는 나에게 여유를 주는 공간이 아니라 스쳐가는 공간일 뿐이었다. 하지만 퇴직 후 시골 생활을 시작하면서 카페는 내 삶 속에서 점점 특별한 공간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퇴직 후 시골집에 머물다 보면 며칠씩 사람을 만나지 않는 날이 이어지곤 했다.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뒷밭의 작물과 마당을 찾은 새들, 그리고 실 새 없이 자라는 풀과 대화를 나누게 된다. 풍경은 여유롭고 아름답지만, 고요가 반복될수록 세상과 멀어지는 기분이 스며든다. 그럴 때면 스스로에게 상을 주듯 카페로 향한다. 한 잔의 커피는 세상과 나를 다시 연결하는 끈이 되고, 그 날 하루는 가장 생각이 분주한 날이 된다. 그렇게 카페는 나의 ‘진한 벗’이 되어주기 시작한다.
마지막 버킷리스트였던 바이크 라이딩을 시작하면서, 카페는 본격적인 친구가 됐다. 시골길을 따라 라이딩하면서 만난 카페는 하나의 여행지도, 설렘의 장소였다.
나는 가능하면 한 번 간 카페는 다시 가지 않는 원칙을 세웠다. 익숙함의 안락함보다

카페 예찬 도시에서 정자까지

낯선 풍경 속에서 피어나는 설렘을 택한 것이다. 그 덕분에 라이딩 루트마다 새로운 카페와 마주하게 됐고, 그곳에서 만나는 주인의 취향과 철학, 대형 포랜자이즈에서는 느낄 수 없는 온기를 누렸다.
라이딩하면서 장맛비에 흠뻑 젖은 옷을 말리며 햇살을 기다리던 영산강변의 무인카페, 드들강변의 늦은 밤까지 불이 켜진 단골카페에서 글을 쓰던 시간, 예쁜 다육이를 선물 받던 순간들은 여전히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글쓰기를 시작하면서 카페는 더 특별한 공간이 됐다. 집에서는 눈앞의 일거리에 쉽게 방해받기 십상이지만 카페에서는 오히려 집중이 깊어졌다. 창가에 앉아 사람들의 움직임을 바라보다 보면, 새로운 글감이 불쑥 고개를 들었다. 연인의 사랑, 가족의 피서지, 학생의 공부방, 혼자만의 사색 공간 등 카페 안에는 각자의 이유로 찾아온 사람들이지만, 그 공기 속에는 공통된 온기가 흐르고 있었다.
어느 곳에서나 만날 수 있는 카페 공화국이 됐다. 점심을 먹고 자연스럽게 카페를 찾았고, 맛집 옆에는 카페가 운영되고, 식당을 새롭게 오픈하면 카페도 함께 운영한 사실을 알게됐다. 예전에는 직장인과 학생들이 단골 손님이었었는데 이제는 시골에서도 어르신들이 점심식사를 한 후 찾는 일상적인 공간이 됐다. 이제 카페는 단순히 차를 파는 곳이 아니라 공간을 파는 곳으로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공간에서 새로운 카페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만남의 장소에서 작품 전시장, 시 낭송장, 공연장으로 진화되고 있다. 갈수록 개인화되어가는 사회에서 이렇게 만남의 광장, 소통의 광장, 배움의 공간으

로 이어진다면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커피를 즐기다 보니 바리스타 자격증에도 도전하게 됐고, 이제는 커피를 직접 향아리에 로스팅하는 것도 배우면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섰다. 다양한 커피를 직접 추출하면서 또 다른 즐거움을 찾았다. 다양한 원두와 적당한 물 온도로 내리는 드립커피의 맛은 즐거움 중 하나가 됐다. 나는 이런 과정이 좋다. 카페방문에서 시작된 커피가 바리스타로 이어지며 배우는 과정에서 만나는 남들과의 교류 또한 즐겁다.
바이크로 카페 투어를 다니면서 시골길을 돌아서다가 자연 속에 은둔하듯 숨어있는 정자를 만나게 됐다. 필자는 그 공간을 ‘정자카페’라 부르며 또 하나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카페에서 아름다운 공간에 자연 그대로 역사가 만들어진 정자카페의 매력에 빠져 들었다. 옛 역사와 문화에서 정자를 지은 님과 나누는 침묵의 대화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정자 카페를 가기 위해서 바이크 뒷자리와 자동차의 트렁크에는 항상 다구가 준비돼 있다. 도심 카페의 분위기와 커피 맛도 좋지만 시골길에서 만난 정자에서의 찾자리는 산과 물이 함께하는 풍류를 느끼는 즐거움은 더 좋다.
도시의 카페가 바쁜 일상 속 잠시 멈춤의 쉼터라면, 정자카페는 자연과 어우러지는 풍류와 배움의 공간이다. 이렇게 도심과 시골, 전통과 현대를 넘나들며 필자는 카페를 예찬한다. 커피 한 잔으로 누릴 수 있는 이 풍요로움과 정자에서 만들어가는 찾자리는 퇴직 후 누리는 가장 큰 사치이자, 가장 깊은 위로가 아닐까.

다카시 광장

떠나라

서해영

가끔은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라.
이곳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 다른 나를 만나게 되리니.

“수고한 사람은 떠나라.”



/광주다카시인협회 제공

독자투고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2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치는 화재가 발생했다. 숨진 20대 남성과 60대 여성은 모자(母子) 관계인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아파트 화재 상황에서의 인명피해는 주로 연기 흡입이나 화상, 추락(대피 중 사망) 사례가 많다. 최근 5년 동안 아파트 화재 사망자의 행동을 분석한 결과 특히 대피 중 사망하는 경우가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던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화재 상황에서는 무리한 대피보단 화재 상황에 따라 대피 여부를 판단하고 경우에 따

아파트 화재 대비 대피요령 숙지하자

라선 실내에 대기하며 구조요청을 하는 게 더 안전할 수 있다.
자택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하다면 젖은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를 유지하며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피난시설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 대피한다. 승강기는 절대로 타지 않는다.
대피공간이 없는 경우나 자택 외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화염 또는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창문과 현관문을 닫고 상황을 주시하며 구조를 기다린다.
평상시엔 자신이 사는 아파트 내 피난시설

의 유무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대표적인 피난시설은 방화문으로 이뤄져 있는 대피공간과 창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완강기, 발코니를 통해 하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 얇은 석고보드 등으로 구성돼 누구나 쉽게 부수고 대피할 수 있는 경량구조칸막이 등이 있다.
화재 원인에 따라서 미처 대피할 수도 없어 사망할 수도 있지만 평상시 일반적인 대피요령을 익혀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지혜를 가져보자.

〈한선근·고흥소방서 과역119안전센터 소방위〉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